

참고자료

산업·발전 분야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업체 374개 지정, 온실가스 감축분야에서 대·중소 상생방안 시동

- ▶ 국가 전체 관리업체의 80% 수준인 374개 산업·발전분야 관리업체 지정·고시
- ▶ 'Green Credit' 제도 등 중소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 발표

- 지식경제부는 에너지·산업부문의 온실가스·에너지 감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.28(화) 전경련,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및 기업,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식경제부 박영준 차관 주재로 「제2차 온실가스·에너지 관리위원회」 회의를 개최하였음
- 「온실가스·에너지 관리위원회」는 에너지·산업부문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들을 총괄·조정하기 위한 협의체로서,
 - 산업·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, 에너지·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수립 및 배출통계 산정, 기업에 대한 감축지원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정부와 각계 전문가간의 소통의 장으로 지난 7.14(수) 제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
- 이번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소관분야인 산업·발전분야의 '10년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업체로 374개를 지정·고시한다고 발표
 -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관리업체는 3년간('07~'09년)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업체(법인) 및 사업장으로,

< 관리업체 지정 기준 >

	2011.12.31까지		2012.1.1부터		2014.1.1부터	
	업체 기준	사업장 기준	업체 기준	사업장 기준	업체 기준	사업장 기준
온실가스(tCO2)	125,000	25,000	87,500	20,000	50,000	15,000
에너지(TJ)	500	100	350	90	200	80

- 지경부 소관 산업·발전분야의 경우 업체(법인) 167개, 사업장 207개 등 총 374개 관리업체가 지정되었음
- 지식경제부 소관 관리업체는 '10년 전체 관리업체 470개의 약 80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

< 분야별 관리업체 수 >

	산업·발전 (지식경제부)	건물·교통 (국토해양부)	농업·축산 (농림수산식품부)	폐기물 (환경부)	합 계
관리업체수	374	46	27	23	470
비중	79.6%	9.8%	5.7%	4.9%	100%

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, 업종별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,

○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61백만tCO₂, 에너지사용량은 4,094천TJ(테라줄)로, 각각 국가 총량의 58.2%, 40.6%를 차지

* 온실가스 국가 총배출량 620백만CO₂(’07년), 에너지 총사용량 10,082천TJ(’08년)

** 이는 산업·발전분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5.1%, 에너지사용량의 64.9%에 해당

*** 1TJ(테라줄)은 23.88TOE

○ 업종별로는 ①석유화학, ②제지목재 ③발전·에너지 ④철강 順으로 주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

< 업종별 관리업체 수 >

업종	석유화학	제지목재	발전·에너지	철강	반도체·디스플레이	기계	요업	자동차
업체수	78	57	36	34	31	28	26	20
업종	비철금속	시멘트	섬유	조선	정유	통신	광업	합계
업체수	18	17	11	9	4	3	2	374

지식경제부는 그간, 관리업체 지정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T/F를 운영하여, 2,000TOE 이상 2,667개 에너지다소비업체를 전수 조사하고(5월~8월),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침

* 기타 200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총 조사(14.7만개 5인 이상 제조업체 전수조사)자료 및 에너지사용량 신고자료 등도 활용

한편, 374개 관리업체 중 중소기업 관리업체는 120개로 전체 관리업체의 32.1% 수준이며 '14년까지 전체 산업·발전분야 560여개 관리업체의 약 40%인 220여개로 증가할 전망

이에,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의 목표관리제 이행을 지원하고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「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」을 별도로 마련하여 박영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 주재하는 온실가스·에너지 관리위원회에서 발표

○ 중소기업중앙회 설문결과('10.1~3) 중소기업의 40.3%가 자금, 전문인력, 기술 등 부족으로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본격 시행이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어, 응답기업의 34.1%가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희망

○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·중소상생, 자금·인력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,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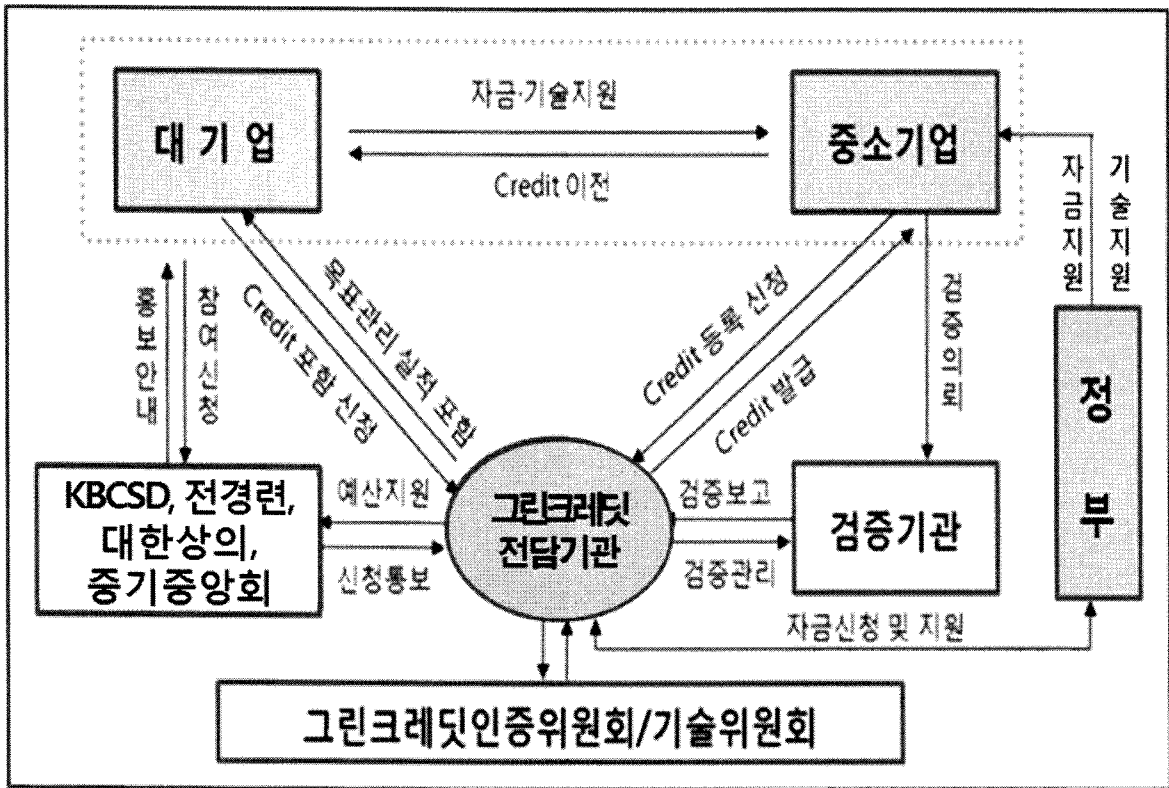
< ① 대·중소 그린 크레딧 제도도입 >

○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·자금을 지원하고, 이로써 발생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일부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「그린 크레딧」제도를 도입할 계획임

○ 그린 크레딧 제도는 상대적으로 자금·기술은 풍부하나 이미 높은 에너지 효율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낮은 대기업과, 감축여력은 많지만 자금·기술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주는 '온실가스 감축 분야의 대표적인 대·중소 상생협력 모델' 임

- 즉,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자금 및 기술지원 등을 활용,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여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,
- 대기업은 조직경계 밖까지 감축여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원가절감에 따른 부품가 인하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
- 정부는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목표관리제 통합지침에 추진 근거를 마련할 예정임

<그린 크레딧(Green Credit) 개념>



< ② 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 >

- 중소기업 관리업체의 경우 '11년부터 인벤토리 구축*과 명세서·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,
* 목표관리제 대상 중소기업 사업장 180개 당 17백만원 지원 (총 30.6억)
- 현행 에너지진단 비용지원 대상이 아닌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TOE 이상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목표관리업체인 경우에는 에너지 진단비용을 보조할 계획
- 또한, 목표관리 대상 중소기업에 대하여 목표관리제 자문, 명세서·이행계획서 등 작성지원을 위한 고급행정·기술인력인 '에너지멘토' 30여명을 4개 업체당 1인씩 배치하여 전반적인 온실가스 감축업무를 지원할 계획임

< ③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강화 >

- (자금지원) ESCO 용자자금을 '11년부터 4,500억원으로 확대('10년 1,350억)하여 중소기업 전용으로 운영하고, 중소기업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자금 이자율을 추가로 인하할 계획

○ (투자 인센티브) 온실가스 감축사업* 등록 하한선을 기존의 500톤에서 100톤으로 하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의 소규모 감축사업을 활성화하고 LED 교체시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원비율을 40%에서 60%로 확대**할 계획

*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감축 크레딧(KCERS)을 정부에서 인증하고 이를 구매하는 제도 ('10년 110억원)

** 정부가 백열전구 등 기존 조명시설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는 기업에 구매비용의 40%(업체별 2,000만원 이내) 보조금 지급 ('10년 10,741백만원 지원)

□ 또한, 지경부는 금년 말까지 에너지관리공단 8개 지역별 센터에 「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센터」를 발족하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이 착근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에도 주력할 것임

□ 아울러, 상기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이 범부처 차원의 정책으로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도 상정할 계획임

□ 금일 온실가스·에너지 관리위원회를 주재한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은 '산업·발전분야의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업체가 전체 관리업체의 80%수준인 만큼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목표관리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산업계가 앞장 설 필요가 있다'고 언급하면서,

○ '지식경제부는 올해 지정된 관리업체의 목표관리제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중 마련될 부문별·업종별 중장기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내년 9월까지 업체별로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' 임을 밝히는 한편,

○ '이번에 발표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도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한 만큼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임' 을 피력

격월간지 “열병합발전” (통권 78호)

KOREA COGENERATION ASSOCIATION NEWS LETTER

■ 발행일 : 2010. 11. 1

■ 발행인 : 회 장 이 병 호

■ 인 쇄 : 동 우 회 (02)2269-0812

■ 회원가입 및 본지 기고·광고안내

열병합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관련업체 및 단체를 회원으로 모십니다. 아울러 본지에 관련자료의 기고와 광고의뢰를 부탁드립니다.

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 바랍니다. ((02)586-1681~2)